

비초월성의 시학: 필립 라킨의 시에 나타난 시간과 죽음의 주제 연구*

윤 희 수

차 례

- I. 서론
- II. 하디, 예이츠, 그리고 라킨
- III. 시간, 노년, 그리고 죽음
- IV. 결론

I. 서론

필립 라킨(Philip Larkin, 1922-1985)은 낭만주의의 언어적 과다함과 모더니즘의 난해한 실험성에서 벗어나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여 시의 명징성을 회복하고 보다 폭넓은 독자들에게 다가가려 했던 1950년대 영국의 “시운동파”(The Movement)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평가받는다(Marsh 181-2). 주제적 측면에서 라킨의 시는 일상의 삶을 소재로 하면서도 시간과 죽음이라는 삶의 본질적 문제를 성찰한다. 그는 모더니즘 시를 대표하는 예이츠(W. B. Yeats)나 엘리엇(T. S. Eliot)처럼 인간 경험의 영역을 뛰어넘은 세계를 동경하거나 상징하지 않는 비초월적 시인이다. 이 논문은 특히 시간과 죽음을 다루는 작품들에 주목하면서 라킨의 시가 보여주는 비초월적 특성을 규명하려 한다. 그 결과 모더니즘 시 이후 라킨으로 대표되는 또 다른 시적 성향의 일면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초기 시에서 예이츠의 영향을 크게 받았지만 하디의 시를 읽으면서 라킨의

* 이 논문은 부경대학교 자율창의학술연구비(2013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시세계는 결정적으로 변모한다. 1945년에 출간한 첫 시집 『북으로 가는 배』(*The North Ship*)를 재발행하면서 덧붙인 서문에서 라킨은 “이 시집에 예이츠가 지배적인 것”이 1943년 옥스퍼드 대학 시절 영국 시인 버논 왓킨스(Vernon Watkins)의 강연에서 처음으로 예이츠의 시를 소개받은 뒤 그 음악성에 매료되어 그 이후 “3년의 세월을 예이츠처럼 쓰려고 보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¹⁾ 그러나 라킨은 1946년 새로 옮긴 하숙방에서 그 동안 소설가로만 알았던 하디의 시 선집을 우연히 읽고 난 뒤 예이츠 시에 대한 “완전하고 영원한” “반발”을 경험한다(Ibid).²⁾

예이츠와는 달리 세련되지 않은 투박한 언어로 삶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하디의 시를 읽고 난 뒤의 느낌에 대해 라킨은 『가디언』지에 실은 글에서 “예이츠는 매우 인위적으로 보이게 되었다--가면과 미친 제인에 관한 모든 헛소리와 여타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비현실적으로 들렸다.”고 고백한다(Ramazani 210에서 재인용). 라킨이 예이츠의 예속에서 벗어나 하디에게 눈을 돌린 것은 무엇보다도 그가 자신이 경험한 삶을 소재로 인생의 본질적인 면을 취급한, 초월적이지 않은 시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시인으로서 하디가 젊은이들을 위한 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스물다섯이나 스물여섯 나이에 접지 않았다는 말은 우스꽝스럽게 들릴 것을 알지만, 적어도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하디로부터 발견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내가 하디에게서 좋아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기질과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는 초월적인 작가가 아니고, 예이츠나 엘리엇 같은 작가가 아니다; 그의 주제는 인간, 인간의 삶,

1) Philip Larkin, *Required Writing: Miscellaneous Pieces 1955-82*. (Ann Arbor: The U of Michigan P, 1999), p. 29. 이하 RW로 약칭함. 그 외 라킨의 저작들 가운데 *Collected Poems*는 CP로, *Further Requirements*는 FR로, *Selected Letters*는 SL로 약칭함.

2) 이러한 라킨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기 작가 모션(Andrew Motion)은 라킨의 성숙한 시들에서 여전히 예이츠의 흔적이 발견된다고 말한다(141). 그러나 적어도 시간과 죽음을 다룬 작품들에서 예이츠와 달리 비초월적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하고 영원한”(complete and permanent) 반발이라는 라킨의 말은 설득력을 지닌다.

시간과 시간의 경과, 사랑과 사랑의 퇴색이다. . . . 하디에게 다가가는 순간 나는 내 자신의 삶을 벗어난 시의 개념으로 애써 자신을 밀어 올리려 애쓸 필요--아마도 예이츠는 내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했다는 것이 내 느낌이다--가 없다는 안도감이 생겼다. 작가는 단지 자기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가 그 경험으로부터 작품을 쓸 수 있는 것이다. 하디는 작품을 쓰는 것보다 느끼는 것을 가르쳤으며--물론 자신의 언어와 자신의 방언과 자신의 상황을 사용해야 한다--자신이 느낀 것에 확신을 갖도록 가르치기도 했다. (RW 175)

라킨이 하디가 초월적이지 않은 작가였음을 강조하면서 예이츠와 엘리엇을 거론한 것은 하디가 그들과 달리 일상적 삶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은 세계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경험을 초월하는 또 다른 세계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엘리엇은 후기 시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에 기대어 현상을 초월하는 비시간성의 세계를 제시하였고, 예이츠 역시 후기 시에서 육신의 쇠퇴를 영혼의 웅대함으로 초극하고 시간과 자연의 질서를 벗어난 세계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도널드 데이비(Donald Davie)가 “하디는 시가 기록된 시간의 직선적인 전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주장을 믿지 않았고, 분명히 다른 시인들도 믿지 않도록 유도한다”고 지적한 것처럼(4), 라킨은 시간의 경과와 죽음에 대한 하디의 비초월적 태도에 공감하고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하디의 시가 라킨의 시적 변모의 동인(動因)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시간과 노년, 그리고 죽음의 주제를 다루는 라킨의 작품들 속에서 하디와 동질적인 비초월적 특성을 찾아내려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노년의 경험을 다루는 하디, 예이츠, 라킨의 관점을 서로 견주어보고, 나아가 시간과 죽음의 주제를 다루는 작품들에서 라킨의 비초월적 성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Ⅱ, 하디, 예이츠, 그리고 라킨

라킨의 시적 변모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하디의 비초월적인 면모는 그의 「
거울을 들여다본다」(“I Look Into My Glass”)에 뚜렷이 나타난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쭈그려져가는 피부를 바라보며
말한다, “제발 내 심장도
이처럼 쭈그라들었기를!”

그러면 나는 내게 차가와진
마음들에 괴로워하지 않고,
체념한 채
내 끝없는 휴식을 쓸쓸히 기다릴 수 있을 테니까.

그러나 시간은, 나를 슬프게 하려고,
일부는 훔치고 일부는 남겨둔다;
저녁에는 한낮의 격동들로
이 연약한 육신을 뒤 흔든다.

I look into my glass,
And view my wasting skin,
And say, "Would God it came to pass
My heart had shrunk as thin!"

For then, I, undistrest
By hearts grown cold to me,
Could lonely wait my endless rest
With equanimity.

But Time, to make me grieve,
Part steals, lets part abide;

And shakes this fragile frame at eve
With throbbings of noontide. (81)

세월의 흐름이 가져오는 육신의 쇠약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심장으로 대표되는 감정도 함께 쇠퇴하기를 바란다. 주위의 사람들에 무감해져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담담히 죽음을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은 “저녁”으로 빚대어진 삶의 황혼기에 육신을 연약하게 만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감정을 “한낮의 격동들로” 여전히 강렬하게 유지시킨다. 시간의 경과를 다루면서도 초월적이지 않은 시인이라는 라킨의 지적대로 하디는 노년에 경험하는 육신의 쇠락과 감성의 보존이라는 괴리현상을 담담하게 그려 보이며 시간적 삶의 한 단면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이와 유사하게 라킨은 「피부」(“Skin”)에서 “매일의 의복”에 비유된 피부가 세월에 따라 변해가는 노화의 과정을 진솔하게 묘사한다.

고분고분한 매일의 의복,
너는 그 속일 수 없는 젊은 표면을
언제나 간직할 수는 없다.
너의 주름들을 배워야 해—
분노, 즐거움, 잠;
시간이라는 지속적인 거친

모래 가득한 바람의
몇 가지 금지의 표시들을;
너는 두터워지고, 헐거워져
지저분한 이름을 실어 나르는
하나의 낡은 가방이 되어야해.
그리고는 바짝 마르고, 거칠어지며, 축 늘어지지;

Obedient daily dress,
You cannot always keep
That unfakable young surface.

You must learn your lines--
Anger, amusement, sleep;
Those few forbidding signs

Of the continuous coarse
Sand-laden wind, time;
You must thicken, work loose
Into an old bag
Carrying a soiled name.
Parch then; be roughened; sag; (CP 92)

라킨에게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피부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늘어나는 주름살들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continuous coarse”처럼 두운을 활용하여 그 지속성을 강조한 모래 바람, 곧 시간의 풍화 작용 앞에서 이름은 퇴색하고 피부는 거칠고 축 늘어질 뿐이다. 이처럼 라킨은 시간의 경과가 가져오는 육체적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뿐 이 자연적 과정에 맞서거나 이를 정신적인 측면에서 극복해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보여주지 않는다.

반면에 예이츠는 「비잔티움으로의 항해」(“Sailing to Byzantium”)에서 “서로의 품에 안긴/ 젊은이들”(The young/ In one another's arms)이 보여주는 “소멸하는 세대”(Those dying generations)의 관능적 세계로부터 멀어져가는 노년의 경험을 다루면서, “하찮은 존재”(a paltry thing)이며 “막대기에 걸쳐진 누더기”(A tattered coat upon a stick)에 빚대어진 육체적 쇠락을 “늙지 않는 지성의 기념비”(Monuments of unaging intellect)와 웅대한 영혼의 힘으로 극복하고, 시간적 질서에서 벗어나 “영원의 예술품”(the artifice of eternity)으로 존속하려는 현실 초월의 열망을 표현한다.

한번 자연을 벗어나면 나는 결코
어떠한 자연적인 것에서도 내 육신의 형상을 취하지 않고,
희랍의 금 세공가들이 줄린 황제를 깨우기 위하여
두드린 황금과 금박을 입혀 만든,
아니면 비잔티움의 귀족과 귀부인들에게

과거, 현재나 미래를
노래하도록 황금의 가지에 얹혀놓은
그런 형상이 되리라.

Once out of nature I shall never take
My bodily form from any natural thing,
But such a form as Grecian goldsmiths make
Of hammered gold and gold enamelling
To keep a drowsy Emperor awake;
Or set upon a golden bough to sing
To lords and ladies of Byzantium
Of what is past, or passing, or to come. (218)

젊은이들이 몰두하는 쾌락과 관능의 세계에서 떨어진 노년의 시인은 육신의 쇠락을 보상받기 위하여 늙지 않는 영혼의 웅장함을 강조하고 끝내 자연과 시간의 질서를 초월하여 영원한 예술품의 형상으로 거듭나기를 갈망한다.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 소망의 이면에는 시간에 지배받은 삶에 대한 강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라킨은 「높은 창문」(“High Windows”)에서 육신의 쾌락에 탐닉하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관능적 삶을 부정하거나 이를 넘어서는 또 다른 세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내가 한 쌍의 젊은이들을 보며
남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피임약을 먹거나 피임기구를 착용한다고 추측할 때
이것이 나이든 사람이면 모두 일생동안 꿈꿔왔던

천국임을 나는 안다--
결속과 몸짓은 구식의 수확기처럼
한쪽으로 밀어놓은 채,
젊은 애들은 행복을 향해 끊임없이,

긴 미끄럼틀을 내려온다.

When I see a couple of kids
And guess he's fucking her and she's
Taking pills or wearing a diaphragm,
I know this is paradise

Everyone old has dreamed of all their lives—
Bonds and gestures pushed to one side
Like an outdated combine harvester,
And everyone young going down the long slide

To happiness, endlessly. (CP 165)

미래에 대한 약속 따위에 연연하지 않고 육체에 탐닉하는 젊은이들의 자유분방한 모습을 바라보며 화자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단정한다. 여기서 천국이란 초월적이고 추상적인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무엇에도 예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현실의 삶을 가리킨다. “끊임없이” 향락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순간 화자는 교회의 색 유리창을 연상시키는 높은 창문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화자는 육체적 쾌락에 맞서는 종교적 세계의 전망을 제시하는 대신 그 창문 너머로 단지 깊고 푸른 대기만이 존재할 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예이츠와 달리 젊은이들의 삶의 방식을 애써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자 곧바로

말보다는 높다란 창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른다:
태양을 받아들이는 창문과,
그것 너머로 아무 것도 보여주지 않고, 아무데도 없으며,
끝이 없는 깊고 푸른 대기.

And immediately

Rather than words comes the thought of high windows:

The sun-comprehending glass,
 And beyond it, the deep blue air, that shows
 Nothing, and is nowhere, and is endless. (*CP* 165)

에이즈에게 “영원한 예술품”인 황금새가 육체의 쇠퇴와 죽음을 초월하려는 상징으로서 노년과 죽음의 대안이었던 반면에, 창문 너머로 보이는 끝없는 대기는 “죽음의 궁극적 공허함”을 예고한다(Ingelbien 275). 라킨은 이 시의 결말 부분에서 육체적 쾌락의 삶이 지속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시간성에 지배받는 일상의 삶 너머 또 다른 세계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하지 않는다. 그는 존 해펜든(John Haffenden)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일상을 초월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일상을 사랑하며, 매우 일상적인 삶을 영위한다.”(*FR* 57)고 말하며 시간의 경과와 궁극적인 죽음에 지배받는 삶의 현실을 수용한다.

Ⅲ. 시간, 노년, 그리고 죽음

늦은 나이에 시를 쓰기 시작한 하디가 시간과 노년의 주제를 다룬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라킨은 일찍부터 시간의 경과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 라킨의 초기 시 「스물여섯에 대하여」(“On Being Twenty-Six”)는 라킨이 처음으로 시간의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하디풍의 시로서(Ingelbien 264) 스물여섯 약관의 나이에 시간이 가져온 변화들에 대한 두려움을 서둘러 보여준다.

나는 지금의,
 이십대 중반이 두려웠다,
 능숙함은 사라지고,
 매 사건마다
 원천을 덮어버리는 의심이 가득 쌓이고,

가뭄으로 변해 버린다.

나는 생각했다: 이 원초적 추진력은
분명 스물넷이나 스물다섯에
시들 거라고;
이제 다타버린 유년기의 찌꺼기가
내가 읊었음을 입증한다.
밝게 타오르던 것은

내안에서 빠르게 소진되었다,
내가 예측했듯이.
재능, 행복--
이런 것들은 물러나고,
멈춰질
더 지저분한 수확이 뒤따른다.

I feared these present years,
The middle twenties,
When deftness disappears,
And each event is
Freighted with a source-encrusting doubt,
And turned to drought.

I thought: this pristine drive
Is sure to flag
At twenty-four or -five;
And now the slag
Of burnt-out childhood proves that I was right.
What caught alight

Quickly consumed in me,
As I foresaw.
Talent, felicity—

These things withdraw,
And are succeeded by a dingier crop
That come to stop; (CP 24)

젊음의 충동이 시들고 재능은 사라져, 더 이상 거두어들이 것이 없는 가뭄과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되리라는 예측은 젊은 시절의 라킨을 두려움 속에 몰아넣는다. 이처럼 라킨이 일찍부터 시간의 경과에 예민한 이유는 단순히 젊음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쉽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인 죽음과 소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연유한다. 그는 『옹저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 많이 생각하십니까? 걱정이 되시나요?”는 질문에 “네, 두려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 . . 그것이 왜 저를 괴롭히느냐고 물으신다면, 끝없는 소멸(endless extinction)이 두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고 대답한다(RW 55).

『덜 속은 자』(*The Less Deceived*)에 수록된 「다음 차례요」(“Next, Please”)는 미래에 거는 많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을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통해 기대와 현실이 어긋나는 인생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언제나 미래를 지나치게 갈망하며, 우리는
기대라는 나쁜 습관을 들인다.
무엇인가 늘 다가오고 있다; 날마다
그때까지라고 우리는 말한다,

깎아지른 절벽에서 작고 분명한
빛나는 약속의 함대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며,
얼마나 느린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서두르기를 거부하는지!

Always too eager for the future, we
Pick up bad habits of expectancy.
Something is always approaching; every day
Till then we say,

Watching from a bluff the tiny, clear
Sparkling armada of promises draw near.
How slow they are! And how much time they waste,
Refusing to make haste! (CP 52)

우리는 “기대라는 나쁜 습관”에 길들여져 “약속의 함대”를 기다리지만, 그것은 시간을 소모하며 더디올 뿐이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온 배들은 “결코 닻을 내리지 않고”(it never anchors) 지나가 버리며 “나타나자마자 과거로 변해버린다.”(it's/ No sooner present than it turns to past.) 결국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마는 순간 뒤따라 우리를 찾아 온 것은 “그 뒤에 거대하고 새도 없는 침목을 이끌고 오는” “검은 돛을 단” 배 한척, 곧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생각한다, 배 한척은 멈추어
우리의 삶에 모든 행복을,
그토록 열렬히 오래 기다린 모든 보상을 내려놓을 거라고.
그러나 우리가 틀렸다;

오직 한 척의 배가 우리를 찾고 있다, 검은 돛을 단
낯선, 그 뒤에 거대하고 새도 없는 침목을
이끌고 오는. 지나간 자리에
어떤 파도도 생기거나 부서지지 않는다.

Right to the last

We think each one will heave to and unload
All good into our lives, all we are owed
For waiting so devoutly and so long.
But we are wrong:

Only one ship is seeking us, a black—
 Sailed unfamiliar, towing at her back
 A huge and birdless silence. In her wake
 No waters breed or break. (CP 52)

죽음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인간을 찾아오는 낯선 존재이다. 삶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유일하게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는 견해는 젊은 시절부터 구축된 인생에 대한 라킨의 일반적 태도를 보여준다 (Hassan 30). 라킨은 「늙은 바보들」(“The Old Fools”)에서 노년과 죽음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경험을 잔인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양로원에서 입을 벌리고 침을 흘리며 “계속 소변을 지리고”(keep on pissing yourself) 아침에 누가 방문했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라킨은 이들에게 다가올 죽음의 실체를 구체화한다.

죽을 때 당신은 부서져버린다. 당신이었던 조각들이
 아무도 보지 못하게 속도를 내며 서로에게서
 영원히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것은 사실 망각일 뿐이다;
 우리가 전에 그것을 가졌지만, 이제 끝날 참이었고,
 존재의 백만 개 잎이 달린 꽃을 피우려는
 독특한 노력과 늘 섞이고 있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 척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들이 첫 조짐들이다;
 어떻게 할지 모르고, 누구인지 듣지 못하고, 선택의 능력이
 사라진 것. 그들의 표정은 그들이 그것의 편임을 보여준다.
 잿빛 머리칼, 두꺼비 같은 손, 말라 주름투성인 자두 빛 얼굴—
 어떻게 그들이 그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

At death you break up: the bits that were you
 Start speeding away from each other for ever
 With no one to see. It's only oblivion, true:
 We had it before, but then it was going to end,
 And was all the time merging with a unique endeavour

To bring to bloom the million-petalled flower
 Of being here. Next time you can't pretend
 There'll be anything else. And these are the first signs:
 Not knowing how, not hearing who, the power
 Of choosing gone. Their looks show that they're for it:
 Ash hair, toad hands, prune face dried into lines -
 How can they ignore it? (CP 196)

삶의 가능성을 아름답게 꽃피워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은 존재를 산산이 분해시키고 망각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존재의 백만 개 잎이 달린 꽃”의 화사한 이미지는 노인의 삶에 수반된 누추한 모습들과 공포감을 희석하기도 하지만(Whalen 24), 무시무시한 죽음의 분해 과정 앞에 결국 그 이미지에 담긴 삶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은 연약할 뿐이다(Swarbrick 128). 인지력, 청각력, 선택 능력의 상실은 다가올 죽음의 “첫 조짐들”이며 “젓빛 머리칼,” “두꺼비 같은 손,” “말라 주름투성인 자두 빛 얼굴”을 지닌 노인들에게 죽음은 무시할 수 없는 실체로 다가온다. 라킨은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로 죽음의 실제성을 잔인할 정도로 구체화시키고 있지만, “다음번에 또 다른 무엇이 있는 척 할 수는 없다”고 단정하며 영생과 내세의 삶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현세적 삶의 제약을 뛰어넘으려 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행동 바로 밑에 놓인 용해하는 공허함”(the solving emptiness/ That lies just under all we do)이며 “영원하고, 텅비고, 진정한”(permanent and blank and true)(CP 132) 죽음의 공포를 상쇄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가 전개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병원임이 드러나는 「그 건물」(“The Building”)에서 라킨은 병원의 안과 밖을 관찰하며 일상의 삶과 죽음에 대한 예리한 성찰을 보여준다. 갈수록 높이를 더해가는 병원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사람들이 “무언가 잘 못 되었음을 고백하기 위해”(To confess that something has gone wrong) 찾아가는 장소로 그려진다. 고해성사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환자가 의사에게 아픈 곳을 설명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confess”는 현대에 병원이 과거에 교회가 맡았던 역할을 대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 시의 중반부에서 병원 바깥 풍경을 내다보던 화자의 눈에 비쳐진 “문 닫힌 교

회”의 이미지는 인간을 치유하는 역할을 병원에 넘겨준 교회의 위축된 위상을 나타낸다.

바깥은 충분히 넓아 보인다:

붉은 벽돌, 단열재로 감싼 파이프, 그리고 누군가 그곳을 지나쳐
주차장으로 나가, 해방된다. 그리고는 대문을 지나,
차량들; 문 닫힌 교회; 짧은 테라스의 거리들,
거기에서 아이들은 분필 놀이를 하고, 머리를 치장한 소녀들은

세탁소에서 상의와 하의를 들고 온다--오 세상여,
너의 사랑, 너의 기회는 이곳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구나! 그리고 우리를 잠재웠다가
따로 깨어나는 감동적인 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다. 그 속에서 자만심과
자신을 보호하는 무지가 영켜
삶을 진행하다가, 무너진다

이 복도로 불리어지는 순간에서야 비로소 (이제 한 번 더
간호사가 손짓해 부른다--).

Outside seems old enough:

Red brick, lagged pipes, and someone walking by it
Out to the car park, free. Then, past the gate,
Traffic; a locked church; short terraced streets
Where kids chalk games, and girls with hair-dos fetch

Their separates from the cleaners -- O world,
Your loves, your chances, are beyond the stretch
Of any hand from here! And so, unreal
A touching dream to which we all are lulled
But wake from separately. In it, conceits
And self-protecting ignorance congeal

To carry life, collapsing only when

Called to these corridors (for now once more
The nurse beckons--). (CP 192)

병원이라는 “묘하게 중립적인 장소에 갇힌”(caught/ On ground curiously neutral)(CP 191) 환자들은 바깥세상의 평범한 일상들로부터 차단되어 있다. 평소에는 건강에 대한 자신감과 무지로 각자의 삶을 살다가 이상이 생겨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일상의 삶은 무너져버린다. 이들의 삶을 지탱시켜주던 일상의 꿈과 기대는 이제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문 닫힌 교회”는 이들의 불안과 공포로부터의 피난처가 될 수 없다. 라킨은 이 시의 결말부에서 병원은 죽음을 늦추고 두려움을 초월하려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상징하지만 “다가오는 어둠”을 막을 방법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모든 사람은 죽으리라는 것을 안다.
아직은 아니고, 아마 여기서는 아니겠지만, 결국,
이와 같은 어디에선가. 그것이 바로 이 깨끗이 잘라낸 낭떠러지인,
병원의 의미; 죽어간다는 생각을
초월해보려는 인간힘, 왜냐하면 만일 그것의 힘이
성당을 능가하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다가오는 어둠을 막지 못한다, 비록 저녁마다 사람들이

쓸모없고, 미약하며, 달래주는 꽃들로 애쓸지라도.

All know they are going to die.
Not yet, perhaps not here, but in the end,
And somewhere like this. That is what it means,
This clean-sliced cliff; a struggle to transcend
The thought of dying, for unless its powers
Outbuild cathedrals nothing contravenes
The coming dark, though crowds each evening try

With wasteful, weak, propitiatory flowers. (CP 192-193)

병원은 인간이 “죽어간다는 생각”과 두려움을 뛰어넘으려는 안간힘을 상징한다. 그러나 병원은 죽음을 잠시 지연시키고 면회객들은 “쓸모없고, 미약하며, 달래주는 꽃들”로 위로할 뿐 궁극적으로 죽음을 저지하지는 못한다. 병원의 힘이 “성당을 능가하지 못하면 그 어느 것도/ 다가오는 어둠을 막지 못한다”는 말은 종교의 힘으로 죽음을 초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만, 라킨은 앞서 “문 닫힌 교회”라는 표현으로 그 실현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버렸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교회 방문」(“Church Going”)의 결말부에서도 라킨은 “주위에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어 누워있다면”(If only that so many dead lie round) 교회는 “현명해지기 적당한”(proper to grow wise in)(CP 98) 곳이라는 말로 교회의 역할을 긍정하는 듯 보이지만, 교회에서 인간이 터득하는 지혜가 교회 묘지에 누워있는 많은 이들이 입증하듯이 어떤 것도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이 말 속에는 죽음 앞에서 종교의 무력함을 반어적으로 드러내는 라킨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성찰을 완결하는 「새벽의 노래」(“Aubade”)에서 라킨은 「그 건물」에서처럼 타인들의 삶을 관찰하며 죽음을 성찰하고 일반화하는 대신, 죽음을 자신의 삶에 밀착하여 자기 경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 연인들이 새벽을 찬미하는 전통적인 연애시 “aubade”를 반어적으로 차용하여 제목으로 붙인 이 시에서(Marsh 125) 라킨은 영생과 내세에 대한 기대로 죽음을 초월하려는 종교의 가식을 벗겨내면서 특유의 비초월적 성향을 한층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은중일 일하고, 밤에는 어중간히 취해,
네 시에 소리 없는 어둠에 깨어서 나는 응시한다.
시간이 흐르면 커튼의 가장자리가 밝아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사실상 늘 거기에 있는 것을 바라본다:
이제 하루가 더 가까워진 씬 없는 죽음이,
어떻게, 어디서, 언제 내가 죽을 것인가 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
쓸모없는 의문이지만,

죽어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새삼 떠올라 나를 사로잡고 두렵게 한다.

눈부신 빛에 마음이 텅 빈다. 이루지 못한 선행,
베풀지 못한 사랑, 쓰지 않고 버려진 시간에 대한
회한 때문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인생이 그 잘못된 시작에서 간신히 벗어나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리고,
아예 벗어날 수도 없어 비참하기 때문도 아니다;
영원한 총체적 공허,
우리가 향해 가서 늘 길을 잃고 말 분명한 소멸 때문이다.
여기 없고, 어디에도 없지만 곧 찾아올;
이보다 더 두려운 것, 더 진실한 것은 없다.

이것은 어떤 재주로도 쫓아 버릴 수 없는
특별한 방식의 공포. 종교가 시도했던,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듯 가장하려 만들어낸
저 거대하고 남아빠진 화려한 악극,
어떠한 이성적 존재도 자기가 느끼지 못할 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다며 허울 좋게 말하지만
정작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임을 알지 못 한다:
보지도, 듣지도 못하며, 만지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지 못한다는 것,
생각할 것도, 사랑하고 관계를 맺을 것도 없는,
누구도 되돌아올 수 없는 마취 상태.

I work all day, and get half-drunk at night.
Waking at four to soundless dark, I stare.
In time the curtain-edges will grow light.
Till then I see what's really always there:
Unresting death, a whole day nearer now,
Making all thought impossible but how
And where and when I shall myself die.
Arid interrogation: yet the dread

Of dying, and being dead,
Flashes afresh to hold and horrify.

The mind blanks at the glare. Not in remorse
—The good not done, the love not given, time
Torn off unused—nor wretchedly because
An only life can take so long to climb
Clear of its wrong beginnings, and may never;
But at the total emptiness for ever,
The sure extinction that we travel to
And shall be lost in always. Not to be here,
Not to be anywhere,
And soon: nothing more terrible, nothing more true.

This is a special way of being afraid
No trick dispels. Religion used to try,
That vast moth-eaten musical brocade
Created to pretend we never die,
And specious stuff that says No rational being
Can fear a thing it will not feel, not seeing
That this is what we fear—no sight, no sound,
No touch or taste or smell, nothing to think with,
Nothing to love or link with,
The anaesthetic from which none come round. (CP 208)

새벽 네 시에 깬 화자는 “사실상 늘 거기에 있는” “침 없는 죽음”에 하루 더 다가섰음을 깨닫는다. 자신이 죽을 장소와 방법과 시간에 대한 생각에 몰두하던 화자는 결국 “총체적 공허”와 “분명한 소멸”로 표현된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다. “거대하고 낱아빠진 화려한 악극”에 비유된 종교는 “우리가 결코 죽지 않는다는 듯 가장”하여 영생과 내세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느끼지 못할 것을/ 두려울 수는 없다”는 말로 죽음의 공포를 초월하려 한다. 그러나 “누구도 되돌아올 수 없는 마취 상태”인 죽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

각과 사고 작용을 중지시키고 타인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실제적인 경험이어
서 살아 있는 인간에게 떨쳐버릴 수 없는 공포를 가져온다.

그렇게 그것은 바로 시선의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다,
초점이 잡히지 않은 작은 얼룩,
매 번의 충동을 우유부단함으로
가라앉혀버리고 마는 지속적인 한기.
대부분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나, 이것은 벌어질 일이고,
그 깨달음은 우리가 친구나 술 없이 사로잡히는 순간
용광로 같은 두려움 속에서 불같이 솟구친다. 용기도 소용없다:
용기란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다.
용기 있다 해도 어느 누구도 무덤을 벗어나지는 못한다.
버텨보든 투덜대든 죽음은 달라지지 않는다.

천천히 빛이 강해지면서 방은 모습을 드러낸다.
그것은 옷장처럼 뚜렷이 서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늘 알아왔으며, 피할 수 없음을 알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 한 쪽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에 전화기들은 잠긴 사무실 안에
웅크린 채 울릴 채비를 하고,
개의치 않고 복잡한, 임대한 세상은 깨어나기 시작한다.
해가 없는 하늘은 점토처럼 하얗다.
일은 마쳐야 한다.
우체부들이 마치 의사처럼 집집마다 옮겨 다닌다.

And so it stays just on the edge of vision,
A small unfocused blur, a standing chill
That slows each impulse down to indecision.
Most things may never happen: this one will,
And realisation of it rages out
In furnace—fear when we are caught without
People or drink. Courage is no good:

It means not scaring others. Being brave
Lets no one off the grave.
Death is no different whined at than withstood.

Slowly light strengthens, and the room takes shape.
It stands plain as a wardrobe, what we know,
Have always known, know that we can't escape,
Yet can't accept. One side will have to go.
Meanwhile telephones crouch, getting ready to ring
In locked-up offices, and all the uncaring
Intricate rented world begins to rouse.
The sky is white as clay, with no sun.
Work has to be done.
Postmen like doctors go from house to house. (*CP* 209)

아침이 밝아오면서 화자는 “임대한 세상”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 일상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행위의 저변에는 반드시 발생하고 말 죽음을 애써 회피하고 망각하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일상의 삶은 라킨이 「소망들」(“Wants”)에서 “죽음으로부터의 값비싼 외면”(The costly aversion of the eyes away from death)(*CP* 42)이라 했듯이 죽음을 망각하고 그 공포를 잊기 위해 인간이 치러야 하는 값비싼 대가가 될 것이다. 마지막 행에서 “우체부들이 마치 의사처럼 집집마다 옮겨 다닌다”는 말은 「그 건물」에서처럼 의사가 죽음을 지연시키며 그 공포를 완화하려 애쓰듯이 우체부가 전해 주는 소식으로 우리는 세상과 소통하고 타인과 교류하면서 삶을 계속해 나가며 일상의 “일을 마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라킨 특유의 반어법에 유의할 때, 다른 한편으로 이 문장은 “버텨보던 투덜대던 달라질 것이 없이” 죽음은 마치 저승사자를 연상시키는 우체부처럼 집집마다 찾아온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IV. 결론

라킨은 초기 시에 예이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초월적이지 않은 작가 하디의 시세계에 눈을 돌린다. 한낱 “거짓 불꽃”이었다고 라킨이 고백한(SL 378) 예이츠와의 결별은 단지 그가 추구하던 시의 음악성과 상징주의에 대한 반발에 그치지 않고, 일상의 현실을 초월한 대체적인 세계를 열망하거나 구축하려 한 예이츠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다.

라킨의 시적 변모를 가져온 하디와, 예이츠, 라킨의 시를 서로 견주어 봄으로써 예이츠가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영혼과 예술의 세계를 열망하며 노년의 제약을 벗어나려한 반면에, 하디와 라킨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년의 경험을 담담히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킨의 이러한 비초월적 태도는 인간은 결국 총체적 공허와 소멸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현실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인 관점에서 비롯된다. 「높은 창문」에서 교회의 창문 저편 “깊고 푸른 대기”에 비유된 공허한 소멸의 세계를 암시하고, 「그 건물」에서 문 닫힌 교회의 이미지와, 그리고 「새벽의 노래」에서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듯 가장하려 만들어낸/ 저 거대하고 낱아빠진 화려한 악극”의 표현으로 라킨은 종교가 죽음의 공포를 진정시키고 죽음의 엄연한 실재성에 대안을 마련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시간과 죽음은 사실 새삼스러운 시의 주제는 아니며 시인들은 시간과 죽음을 극복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셰익스피어는 시간의 잔인한 손길을 견디는 시와 사랑의 힘을 역설하였고, 존 단은 기독교적 영생관에 기대어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으려 했다. 위즈워드는 기억의 힘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되살리려 했으며, 휘트먼은 풀 한포기 속에서 죽음이 제압할 수 없는 삶의 연속성을 발견하였다. 예이츠는 육신의 쇠락을 영혼의 위대함과 예술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였고, 엘리엇은 시간에 지배되지 않는 초월적인 영원의 세계를 상정하였다. 그러나 라킨은 종교를 포함하여 시간과 죽음을 초월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신뢰하지 않으며 죽음을 엄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들과 차별화된다.

독자에게 희망과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현실을 초월한 또 다른 세계의 전

망으로 삶의 무게를 견디게 해주는 것이 시인의 역할이라면 라킨은 분명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시인일 것이다. 라킨은 독자를 미혹하지 않고, 일상의 누추함과 삶의 제약까지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패에 관한 좋은 시는 성공이다”(A good poem about failure is a success)(RW74)는 그의 말처럼 시간의 제약과 죽음을 초월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라 한다면 최소한 라킨은 그 실패를 시로 표현하려는 시도에서 만큼은 성공을 거둔 시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라킨의 시는 시간적 삶과 죽음을 뛰어넘으려는 시도의 무용성을 일깨우는, 그의 시집의 제목처럼 “덜 속은 자”가 남긴 기록이다.

인 용 문 헌

- Davie, Donald. *Thomas Hardy and the British Poetr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 Hardy, Thomas. *The Complete Poems of Thomas Hardy*. London: Macmillan, 1976.
- Hassan, Salem K. *Philip Larkin and His Contemporaries: An Air of Authenticity*. London: Macmillan, 1988.
- Ingelbien, Raphael. "From Hardy To Yeats: Larkin's Poetry of Ageing," *Essays in Criticism* 53.3 (2003): 262-277.
- Larkin, Philip. *Collected Poems*, ed. Anthony Thwaite. London: The Marvell Press and Faber and Faber, 1988.
- _____. *Further Requirements: Interviews, Broadcasts, Statements and Book Review, 1952-85*. Ann Arbor: The U of Michigan P, 2004.
- _____. *Required Writing: Miscellaneous Pieces 1955-1982*. Ann Arbor: The U of Michigan P, 1999.
- _____. *Selected Letters of Philip Larkin 1940-1985*, ed. Anthony Thwaite. London: Faber and Faber, 1992.
- Marsh, Nicholas. *Philip Larkin: Poem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2007.
- Motion, Andrew. *Philip Larkin: A Writer's Life*. London: Faber and Faber, 1993.
- Ramazani, Jahan et al. eds. *The Norton Anthology of Modern and Contemporary Poetry*. 3rd edition. Vol. 2. New York: Norton, 2003.
- Swarbrick, Andrew. *Out Of Reach: The Poetry of Philip Larkin*. London: Macmillan, 1995.
- Whalen, Terry. *Philip Larkin and English Poetry*. Basingstoke: Macmillan, 1986.
- Yeats, W. B. *The Collected Poems of W. B. Yeats*. London: Macmillan, 1961.

Abstract

The Poetics of Non-Transcendence: A Study of Time and Mortality in Philip Larkin's Poetry

Hee-Soo Yoon (Pukyong National Univ.)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endency of non-transcendence in Larkin's poems which deal with time and mortality. Unlike Yeats and Eliot who try to transcend time-bound reality with esoteric and atemporal symbols, Larkin accepts that men cannot avoid the ageing process and ultimate death.

Breaking up with Yeats who predominates his earlier poetry, Larkin turns to Hardy's poetry. He finds his congeniality with Hardy who does not attempt to transcend the ordinary world controlled by the passing of time in aspiration for eternity. Under the influence of Hardy, Larkin accepts the natural ageing process "with equanimity" in contrast to Yeats who struggles to overcome old age with "unageing intellect" and magnificent soul. This tendency of non-transcendence is based on Larkin's realistic and pessimistic view that man cannot escape the complete emptiness and extinction accompanied by death.

Larkin shows the futility of attempts to "contravene the coming dark" in his poems about death. In "The Building," people visit a hospital instead of a church to confess "something has gone wrong," but in spite of their struggle "to transcend the thought of dying," nothing blocks the ultimate extinction. In this poem, presenting the image of "a locked church" outside the hospital, he also suggests the futility of religion to cure people of dread with the promise of eternal life. In "Aubade," Larkin continues to

point out that religion compared to "vast moth-eaten musical brocade/
Created to pretend we never die" cannot transcend the fear of death in the
end.

Even though Larkin gives no hope to readers with his bleak view of life,
he at least refuses to delude them into a false belief that "There will be
anything else" after death. Larkin's poetry is an honest record of "the less
deceived."

Key Words: Philip Larkin, non-transcendence, time, mortality, religion
필립 라킨, 비초월성, 시간, 죽음, 종교

논문접수일: 2014.1.09

심사완료일: 2014.2.16

게재확정일: 2014.2.23

이름: 윤희수

소속: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주소: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이메일: yoonhs@pknu.ac.kr